

The Impact

연차보고서

2024 Annual Report



자연과
사람

GREENPEACE

CONTENTS

미션 03

인사말 05

특별 인터뷰 07

환경감시선 10

해양보호 13

플라스틱 16

기후에너지 20

생물다양성 26

시민참여 29

임팩트 스토리 32

후원금 사용 내역 보고 38



그린피스의 미션

그린피스는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폭로하고, 친환경적이고
꼭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해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독립적인 캠페인 단체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해결

탄소 배출을 줄이고, 보다 빠르게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기업에 요구합니다.

생물다양성 보호

환경 파괴와 오염으로부터 숲과 바다, 야생동물을 보호합니다.

오염물질 제거

플라스틱 쓰레기, 독성물질 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습니다.

평화와 기후정의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전 세계적인 변화와 협력을 이끕니다.

지속가능한 식량

생태 농업,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제도적 변화

지속가능성과 공평성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과 경제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린피스의 모든 활동은 바로 후원자님의 한결같은 지지와 후원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함께 지구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후원자님의 힘으로 우리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2024년 연차보고서의 주제는 “자연과 사람”입니다.
건강한 환경이 있기에 인류의 건강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2025년을 기대하며, 우리의 계획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PLAN.1

글로벌 캠페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캠페인을 이어가며,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글로벌 해양조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비준에 이어, 중국과 대만의 비준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COP30 회의도 중요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와 탄소 감축을 위한 글로벌 논의에 동아시아 지부도 목소리를 보탬 예정입니다.

PLAN.2

혁신적인 조사 방식 도입

올해 우리는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환경 조사 방식을 도입해 한국 TV 프로그램 속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대만에서는 어업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LAN.3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보호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일 역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이 환경 공약을 축소하며 뒷걸음질 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흐름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동아시아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PLAN.4

재정적 회복 및 자원 최적화

그린피스는 후원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후원 및 유산 기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과 자원 최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변치 않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친환경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찌이팽청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사무총장



남부원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이사회 의장

그린피스와 함께 개인이 만들 수 있는 변화의 크기도 커졌어요



최다혜 후원자님 교사

그린피스를 후원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하루 한 끼는 비건식으로 먹고,
제로웨이스트 용품을 쓰려고 해요. 새 옷 대신 중고 옷을 찾고,
텀블러와 손수건을 챙겨 다니고, 플로깅을 하며 산책을 하죠.
해외여행보다 국내 여행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이런 개인의 노력이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요. 하지만 한계를
느낄 때도 많아요. 금세 같은 자리에 쓰레기가 쌓이고,
마트 진열장엔 과대 포장 제품으로 가득 차 있죠.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환경문제들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결국 정책과 법, 기업의 변화가 훨씬 효율적인 친환경
실천이라 생각해요. 정부, 입법부, 기업이 움직이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깐요.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 단체들은 그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저는 현장에서 발로 뛰어주고 환경 운동을 이끌어가는 그린피스를 응원하고 후원하고 싶어요.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해도, 후원 역시 연대의 한 방법이니까요.



자연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집'입니다

자연은 우리의 집입니다.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망가진 곳이 있으면 정성스럽게 고치며
오래도록 살아가야 하는 집입니다.

2024년에도 수많은 후원자님들이 그린피스와 함께
이 소중한 집을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덕분에 지구 구석구석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지구를 위한 항해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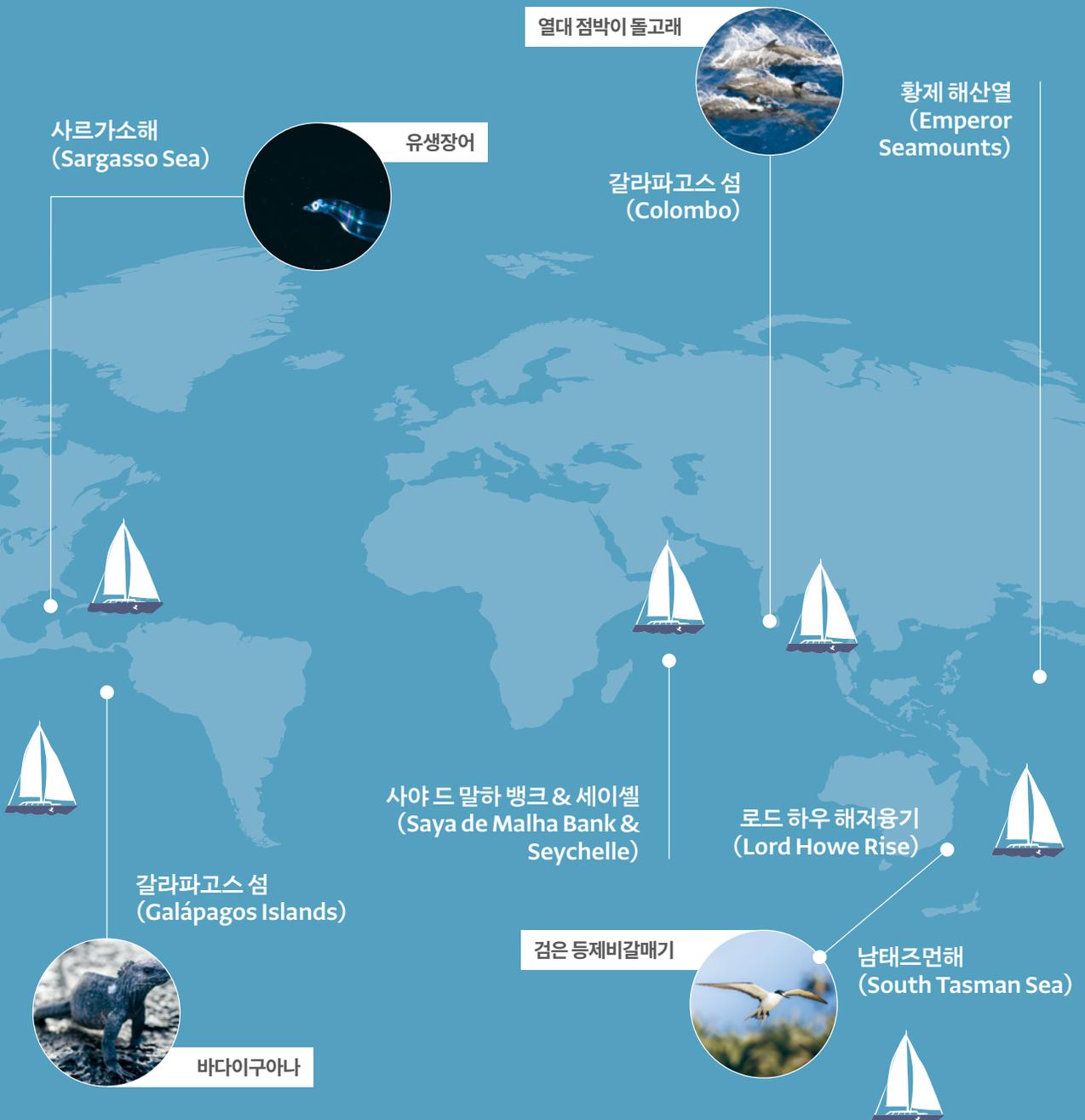
지난 한 해 동안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은 우리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 곳곳을 누볐습니다. 불법 어업을 조사하고, 바다를 파괴하는 개발을 막아서고,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환경감시선은 어디를 방문했을까요?

총 3척의 그린피스 환경감시선은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과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갈라파고스, 사르가소해, 스리랑카 콜롬보, 남부 호주 로드 하우스 해저 용기, 하와이 황제 해산열, 사야드 말하뱅크, 남태즈먼해 등 7곳의 '생태 핫스팟'으로 과학 탐사를 떠났습니다. 이 지역들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희귀한 해양생물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2024 해양보호구역 탐사





태평양
북극
스페인

© Pedro Armestre / Greenpeace

아틱 선라이즈

뮤지션들과 함께 북극을 방문해 심해채굴을 반대하고
심해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뮤직비디오 제작
스페인에서 100척 이상의 어선과 함께 바다와 어민을
지키기 위한 해상 행진에 동참



동아시아
남아시아
인도양

© Baramee Temboonkiat / Greenpeace

레인보우 워리어

인도양 현장 조사를 통해 남획과 불법 어업의 피해 폭로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지속가능한 어업 정책을 위한 자료 수집
한국과 홍콩, 대만을 방문해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촉구



아마존
영국 해협

© Lorraine Turci / Greenpeace

위트니스

아마존 산호와 멸종위기 종 조사 및 기록 작업
해양보호구역 내 영국 해협에서 대규모 어업 활동 모니터링 및
보고서 발표

해양보호구역을 향한 여정

글로벌 해양조약이 합의된 이후, 그린피스는 60개국의 비준을 요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과학적 연구부터 다큐멘터리 제작, 시민 참여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2025년 3월 한국이 동아시아 최초로 비준에 동참했습니다.



보호가 가장 시급한 바다는 어디?

그린피스는 한국을 포함한 유엔(UN) 회원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과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며 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한 해역을 탐사했습니다.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갈라파고스를 비롯해 북대서양의 사르가소해(Sargasso Sea), 태평양의 황제 해산열(Emperor Seamounts)에서 현장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 Deirdre Leowinata / Greenpeace

해양보호구역 로드맵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이 발간한 100쪽 분량의 영문 보고서 <30×30 달성을 위한 로드맵: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 보호>의 국문판을 2024년 상반기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치적 로드맵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이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습니다.



© Greenpeace / Yeo-sun Park

세계 해양의 날 ‘퍼즐모아 바다보호’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퍼즐모아 바다보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 120여 명과 가족들이 참여해 자신이 꿈꾸는 깨끗한 바다를 퍼즐 조각에 그려 가로 6m, 세로 2.7m 크기의 대형 고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의 역할을 상징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해양수산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린피스 해양 보호 다큐멘터리 ‘씨그널’ 제작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해양보호 다큐멘터리 ‘씨그널’을 제작했습니다. 3,000여 명의 시민들이 후원으로 제작에 참여했으며, 후원자들을 위한 특별 비공개 시사회를 10월 개최했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국회 시사회를 진행했으며, 5월에는 부산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UN 해양컨퍼런스를 위한 정책 제안

한국 정부가 2025 UN 해양컨퍼런스에서 해양보호에 대한 강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심해채굴 중단(모라토리엄) 지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 제로 플라스틱 향해!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길은 멀지만,
우리는 분명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 Greenpeace / Sungwoo Lee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하여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5차 회의가
2024년 11월 말,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린피스는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 및 시민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시민 행진 및 서명 전달

그린피스와 연대 단체들은 전 세계 시민 1,000여 명과 함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열리는 부산 벅스코 앞에 모여 각국 대표단에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하며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시민의 눈

INC5가 시작하는 11월 25일, 스위스 예술가 댄 아처(Dan Acher)와 함께 강력한 협약을 촉구하는 세계 시민의 초상을 모아 거대한 눈 형상의 깃발을 제작해 회의가 열리는 벅스코 인근에 설치했습니다.

제로 플라스틱 향해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한국에 입항해, 선상 후원자 행사와 기자회견 등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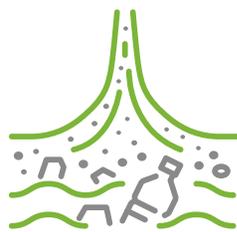
TV도 용기내

미디어 속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지상파 방송 3사 예능 프로그램을 시로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19개 예능 프로그램 중 10개 프로그램에서 노출된 음료 용기 80% 이상이 일회용 플라스틱이었습니다.

2024 한강하구 플라스틱 조사

플라스틱 오염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된 한강 하구 장항습지를 드론과 시를 활용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곳조차 플라스틱 쓰레기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기업의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장항습지 드론 조사 결과



플라스틱 쓰레기
98.5%

플라스틱 쓰레기 중



석유화학업계 플라스틱 공급과잉 조사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표적인 플라스틱 생산지역인 일본, 대만, 한국의 공급 과잉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연간 1,992만 톤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능력을 보유해 3개 시장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 또한 3개 시장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번 INC5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HAC)의 소속 국가이자 협상회의 개최국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가졌던 한국 정부는
그간 언론을 통해 언급한 것과 달리,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강력한 협약을 기대했던
세계 시민을 실망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회의에서
협약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김나라
플라스틱 캠페이너



기후위기에 맞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

그린피스는 2024년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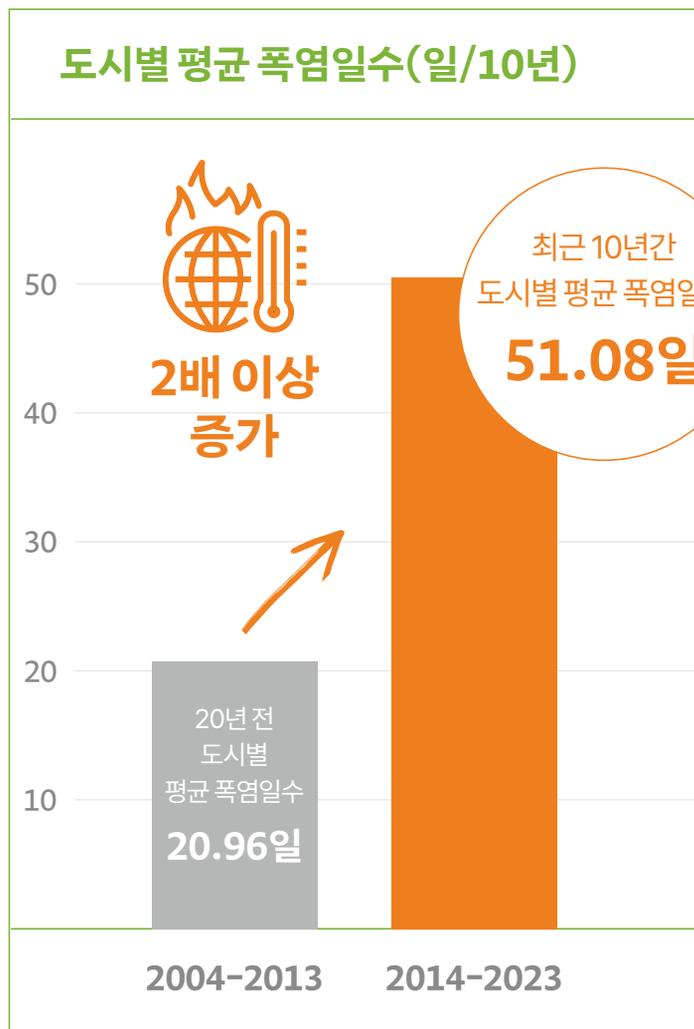
기후재난 대응 캠페인 출범

그린피스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제대로 된 정책을 요구하고, 이재민들의 회복을 돕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활동으로 2024년 여름 폭우 피해가 컸던 전북 익산과 충남 논산에서 긴급 복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재난 시민 대응단을 모집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돕고, 마을 재건을 위한 장기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8월 폭염 리포트

2024년은 한국과 전 세계에서 기록상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그린피스는 폭염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을 알리기 위해 폭염 연구 결과를 발표해 정부의 탄소 감축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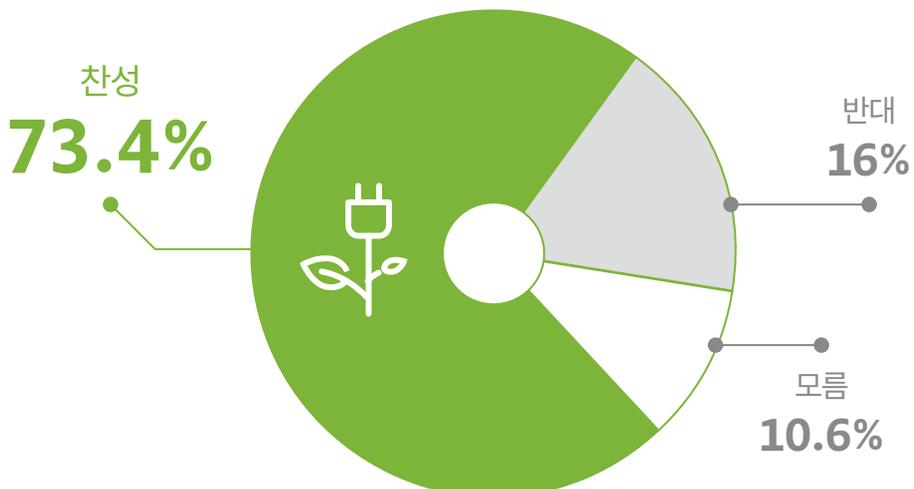
저탄소 도시생활 프로젝트

경기도 시민들과 함께 일상 속 탄소 중립을 위한 ‘저탄소 도시생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포럼을 진행하고, 여주시 에너지 자립마을과 수원 행궁동 ‘차 없는 마을’을 탐방했습니다. 이후 시민들과 함께 저탄소 도시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경기도청에 전달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LNG 발전 설문조사

한국 정부는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짓기 위해 LNG 발전소 6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NG는 온실가스과 건강에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린피스가 진행한 설문에서도 많은 용인 시민들이 건강 피해를 걱정하며, 73.4%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설문조사를 전달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가산단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원 발전소 계획 찬반 입장



삼성전자 2030년 재생에너지 도입 경제성 분석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할 경우 환경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해외 연구진의 분석 결과, 서울시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2021년 기준)의 3배를 감축하고, 연간 15조 7,000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삼성전자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기후공시 개정안 재발의

기업의 기후대응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기후공시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토론회, 기자회견 및 정책 옹호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1월 강훈식 의원과 함께 한 번 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린피스 교통 광고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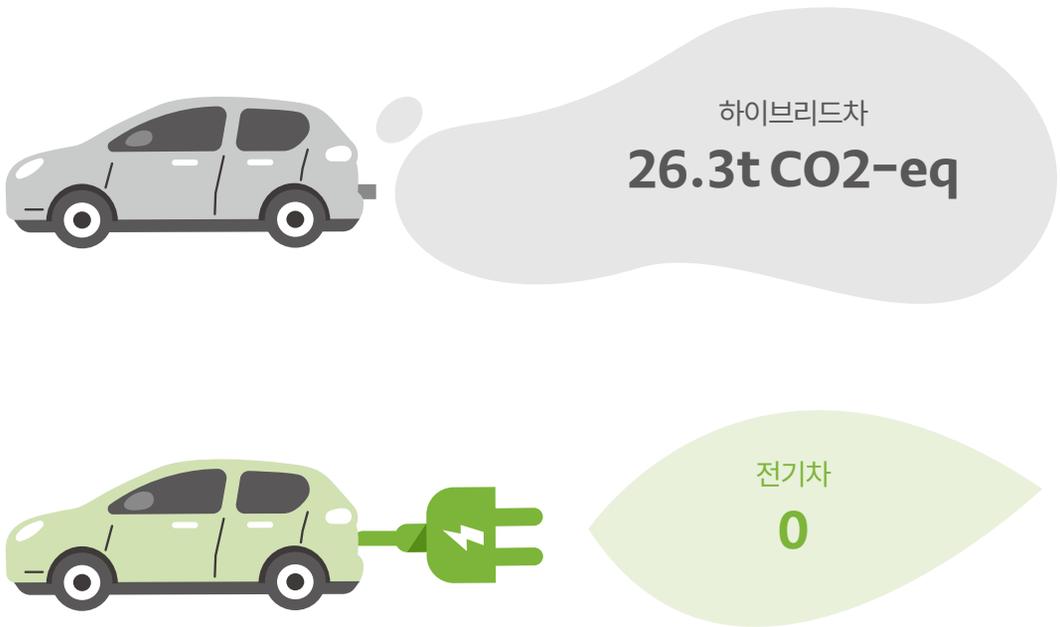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이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의 교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그린피스 그린 Green 교통 광고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120여 편의 출품작 중 대상 수상작 3편은 서울역과 광화문 버스정류장, 강남 지하철역 옥외광고판에 게시하여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시장별 탄소 배출량 분석

‘수송부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2위를 차지합니다. 그린피스는 현대기아의 시장별 탄소 배출량을 분석한 보고서 <후진하는 현대기아: 소외된 신흥시장>을 통해,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확대로 탄소배출이 급증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현대기아가 약속한 탄소중립을 위해 신흥시장에서도 전기차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행 중 탄소 배출량 비교



하이브리드차, 정말 친환경 자동차일까요?

하이브리드차는 더 이상 친환경 차가 아닙니다. 주행 중 탄소배출이 내연기관차보다 겨우 16% 적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그린피스는 자동차 전문 유튜버와 함께 하이브리드차의 환경 영향을 알리고, 전기차 전환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성장 대신 공존, 양보다 질 GDP의 대안을 찾다

국내총생산, 즉 GDP는 경제의 규모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지만 경제의 규모 외 질적인 측면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점수나 불평등 정도,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 등은 GDP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린피스는 지구와 사람의 행복을 위한 GDP 대안 지표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시민 설문조사와 퍼포먼스, 인터뷰, 웹툰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초특가의 함정, 광고를 바꾸는 방법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는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를 불러일으켜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그린피스는 설문조사를 통해 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분석하고, 환경적인 책임을 다하는 광고가 필요함을 알렸습니다.

최근 1년간 모바일 광고를 보고 구매한 패션/의류 중 한 번도 착용하지 않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품이 있나요?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제 우리가
'6차 대멸종'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경고합니다. 멸종 속도는 자연적인
수준보다 수십~수백 배 빠르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생물종의 75%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지킬 시간이 있습니다.



보호지역 안에서 벌어지는 벌채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서울시 전체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약 74,947ha의 보호지역이 경제림 육성단지와 겹쳐 벌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지산입니다. 이곳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자 중요한 생태축입니다.

보호지역이란?

‘보호지역’은 단순히 개발이 금지된 곳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기후조절과 수질 정화와 같이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지역을 지키기 위해 법이나 제도로 지정한 공간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위성사진 분석 및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민주지산 내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이 해제되어 벌목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실질적으로 숲을 지키는 정책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약속: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세계자연기금(WWF)의 2024년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야생생물 개체수가 평균 73% 감소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 196개국이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를 채택하고, 2030년까지 지구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멸종 위기
코알라의 집을
지켜내다**

8월, 호주 대형 슈퍼마켓 체인 울워스가 삼림 벌채 없이 생산된 제품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퀸즈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소고기 생산을 위해 숲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코알라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린피스는 삼림 파괴를 막고 코알라와 야생 동물 서식지를 보호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Greenpeace / Toby Davidson

전국 곳곳 발로 뛰는 시민참여 캠페인



그린피스가 만드는 변화는 늘 시민의 참여에서 시작합니다. 2024년은 특히 서울, 경기 외에 다양한 지역의 시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월

대전에서 기후청년 토크 콘서트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기자단’과 함께 미국 기후청년운동 이야기를 담은 영화 ‘TO THE END’ 상영 및 관객과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4월

충남 아산에서 허니비스쿨

꿀벌을 살리는 그린피스의 씨앗 심기 활동에 100곳이 넘는 초중고학교 선생님들께서 씨앗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중 충남 아산 신광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환경동아리 ‘그린웨이브’ 학생들과 함께 꽃 씨앗을 심었습니다.



2월

서울에서 기후토크 페스티벌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 및 실제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약 240명의 시민이 참여해주셨습니다.



5월

서울에서 퍼즐모아 바다보호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어린이들과 함께 정부에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으로 바다를 지켜달라는 요구를 담은 초대형 그림 퍼즐을 그렸습니다.



6월

서울에서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에 참여해, ‘나의 캠페인 MBTI를 알아보자!’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향과 맞는 그린피스 캠페인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1월

부산에서 1123 부산 플라스틱 행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회의에서 강력한 협약의 체결을 요구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대규모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역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행진이었습니다.



8~10월

경기 수원과 여주에서
저탄소 도시생활 프로젝트

경기도 시민들과 지역 교통과 에너지 문제를 알아보고, 수원 행궁동의 걷고 싶은 거리와 여주 상거동의 에너지자립마을의 성공 사례를 견학한 뒤 경기도청에 보낼 정책 제안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10~12월

강릉, 해남과 진도에서
기후재난 시민대응단

기후재난 시민대응단은 기후재난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1박 2일의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후, 폭우 피해를 입은 전남 진도와 해남 그리고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 경포에서 활동했습니다.



영화 '클리어'로 전하는 지구를 위한 메시지

영화감독 심형준 님



© 심형준

영화 '클리어'는 푸름이라는 소녀와 플라스틱을 먹는 외계인 주영이가 서로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영상에 플라스틱 문제를 담은 이 영화의 중요한 배경으로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등장합니다!
이날치x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뮤직비디오에 이어 두 번째로 그린피스와 함께 한 심형준 감독을 만나 영화와 환경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클리어'는 어떤 영화인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플라스틱을 줄이자”가 이 영화의 메시지에요. 국제 플라스틱 조약 때문에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한국에 왔고, 저도 관심이 있어 기사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대응이 아쉽더라고요. 사실 플라스틱은 우리가 그냥 달고 살잖아요. 우리가 영화 속 외계인처럼 뜯어먹진 않지만, 모르는 사이 먹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어요. ‘클리어’라는 제목은 깨끗하다, 투명하다, 어떤 명확한 마음의 상태처럼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영화에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플라스틱에서 ‘클리어’해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찌든 마음도 깨끗해졌으면 좋겠고요.



© 영화 '클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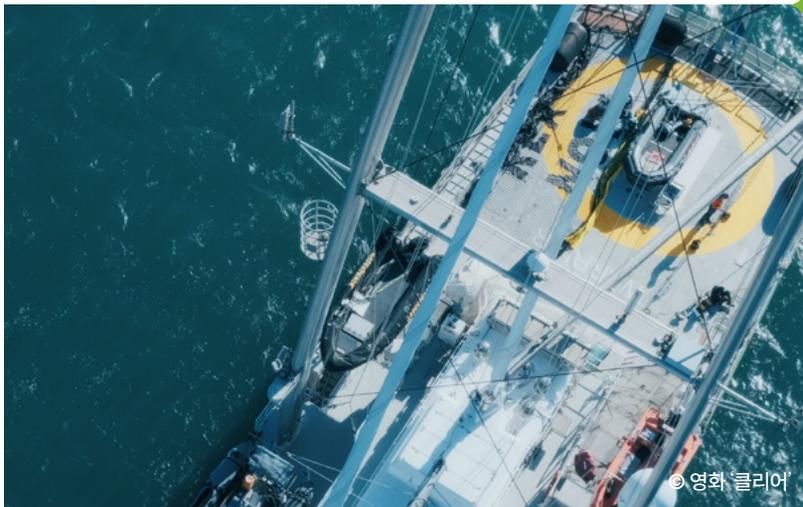
© 영화 '클리어'

Q 레인보우 워리어호에서 촬영은 어떠셨나요?

운 좋게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한국에 왔을 때 촬영할 기회가 생겼어요. 배에서 영화를 찍는 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환경감시선에서 촬영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선원들이 배라는 작은 공간에 모여서 문화를 공유하는 게 참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우리랑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르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작은 나라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밟고 올라서려는 데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Q 그린피스와 함께 작업하시면서 스스로 변한 점이 있나요?

환경이나 동물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다 보니 저를 지켜보는 분들도 많아지고, 저 스스로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품으로 동참하는 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더라고요. 지난번 뮤직비디오 때처럼, 저도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어 기쁩니다.



Q 후원자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땐 ‘물을 사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우스웠거든요. 이제는 다들 아무렇지 않게 물을 사서 마시죠. 다음 세대가 망가진 지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구상한다는 것이 암울하기도 해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변화를 만들지는 못해도 자연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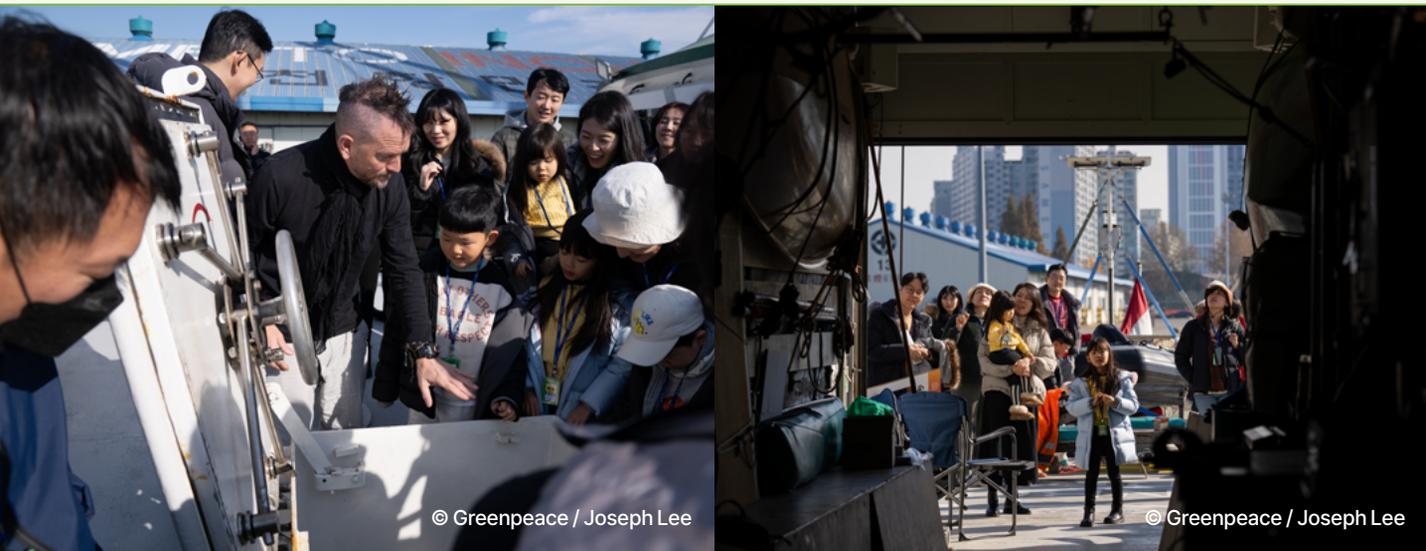
한국을 다시 찾은 레인보우 워리어호, 후원자님과 만나다!



© Greenpeace / Joseph Lee

지난해 11월,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5차 회의에 맞춰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를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랜만의 한국 방문인 만큼, 후원자님들과 만나 환경감시선의 활동을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도 가졌습니다.





후원자님들과 함께한 특별한 순간

부산과 인천에서 열린 초청 행사에서는 환경감시선의 특별한 역할과 선원들의 생활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친환경적인 설계로 바람을 활용한 항해가 가능하며, 곳곳에 후원자님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헤티 선장과 항해사 나초가 배를 안내하며, 14개국 출신으로 이루어진 17명의 선원들의 생활과 캠페인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환경이기에 배려와 조화를 저절로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지구를 위해

후원자님들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환경감시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이 계속해서 바다를 누비며 환경 문제를 기록하고 해결책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감시선에서 새로운 영감을 만나다

자원봉사자 조현주 님



© Greenpeace / Youkyoung Hyun

저는 새로운 영감이 필요할 때마다 봉사활동을 해요. 아동센터에서 과외도 하고, 해외 어린이 편지 번역 봉사도 했었죠. 이번엔 레인보우 워리어호에 주방 보조로 참여했어요. 재료 손질부터 장보기, 설거지, 주방 정리를 맡았죠.

처음엔 배 생활이 걱정됐지만, 따뜻한 분들 덕분에 금방 적응했어요. 의외로 가장 힘들었던 건 뱃멀미였어요! 그래도 선원들과 헤티선장님, 액티비스트 분들을 가까이서 보며 큰 영감을 받았고, 저도 언젠가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됐어요. 무엇보다, 같은 가치를 나누는 소중한 공동체가 생긴 것이 정말 좋아요. 혹시 망설이고 있다면, 그린피스 자원봉사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후원자님 덕분에
우리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의미 있는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연구·교육·캠페인 활동도 단기간에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중 인식을 바꾸거나 정부·기업 같은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선 긴 여정이 필요하죠. 후원자님의 꾸준한 후원 덕분에
그린피스는 흔들림 없이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그린피스 활동에 사용됩니다. 2024년에는 기후 정책, 해양 보호, 플라스틱 오염 해결 등 다양한 활동에 큰 힘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보호지역 보전, 시민참여 확대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그 변화의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후원을 통해, 또는 자원봉사나 우리의 메시지를 공유해 주시는 모든 활동을 통해 함께 변화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후원자님의 후원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린피스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지치지 않고 함께 जाएगा겠습니다.
더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그린피스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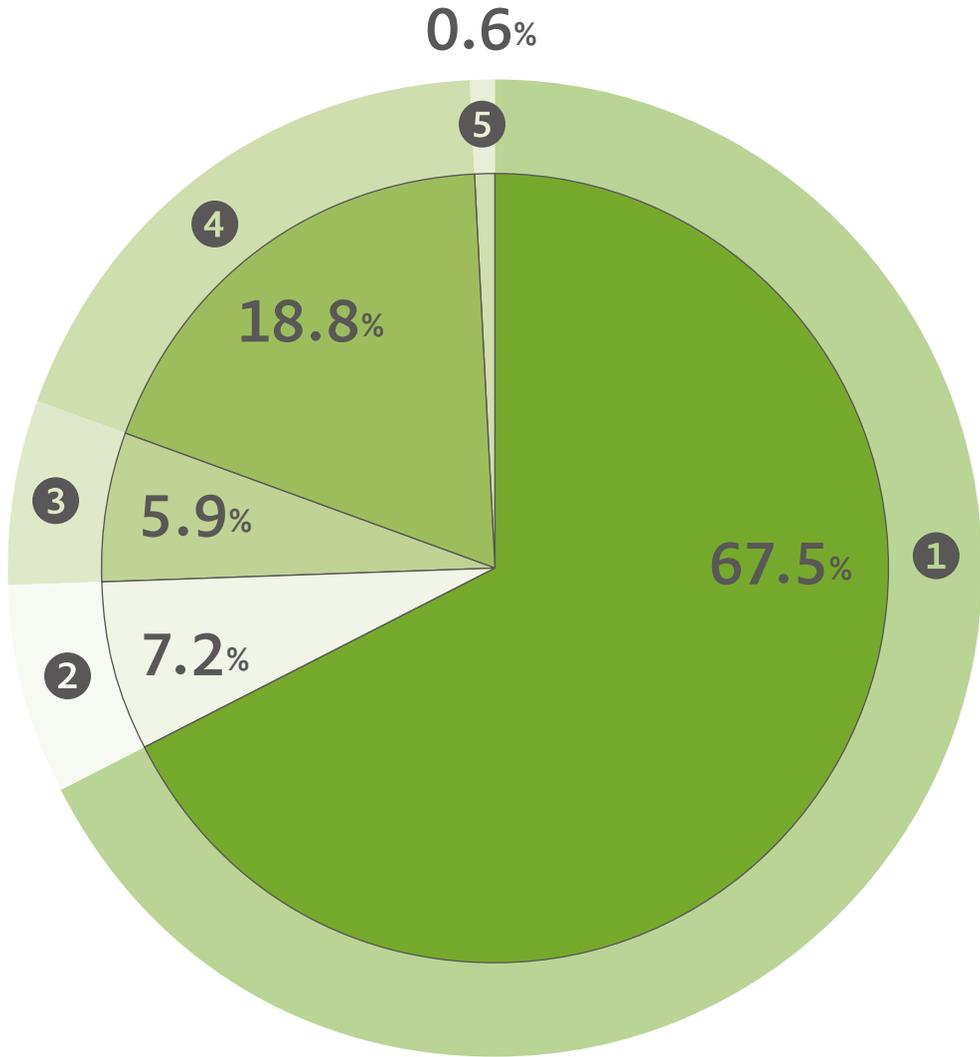
크리스티나 산 비센테
동아시아 지부 부사무총장



2024 동아시아 지부 수입 내역

총 수입(단위: 원)

56,948,239,795



① 기존 후원자 후원금	38,426,683,941
② 신규 후원자 후원금	4,106,890,960
③ 재단 및 신탁, 고액 후원자 후원금	3,353,300,073
④ 그린피스 국제본부 보조금	10,728,976,542
⑤ 이자 및 기타	332,388,278

2024 동아시아 지부 지출 내역

총 지출(단위: 원) **59,086,795,414**



1 캠페인 및 캠페인 지원

기후에너지 | 해양 보호 | 산림 보호 | 건강한 삶/ 플라스틱 | 기타 교차 캠페인 | 캠페인 언론 홍보 | 환경 정보 홍보 및 시민 교육 | 비폭력 직접행동 및 시민참여 프로젝트 | 정책, 사업 및 과학연구

37,573,774,182

2 조직 관리

매니저 관리 및 경영 | 법률 자문 | 인사 관리 | 행정 업무 | 재무 관리 | IT 지원

8,974,306,696

3 모금 및 후원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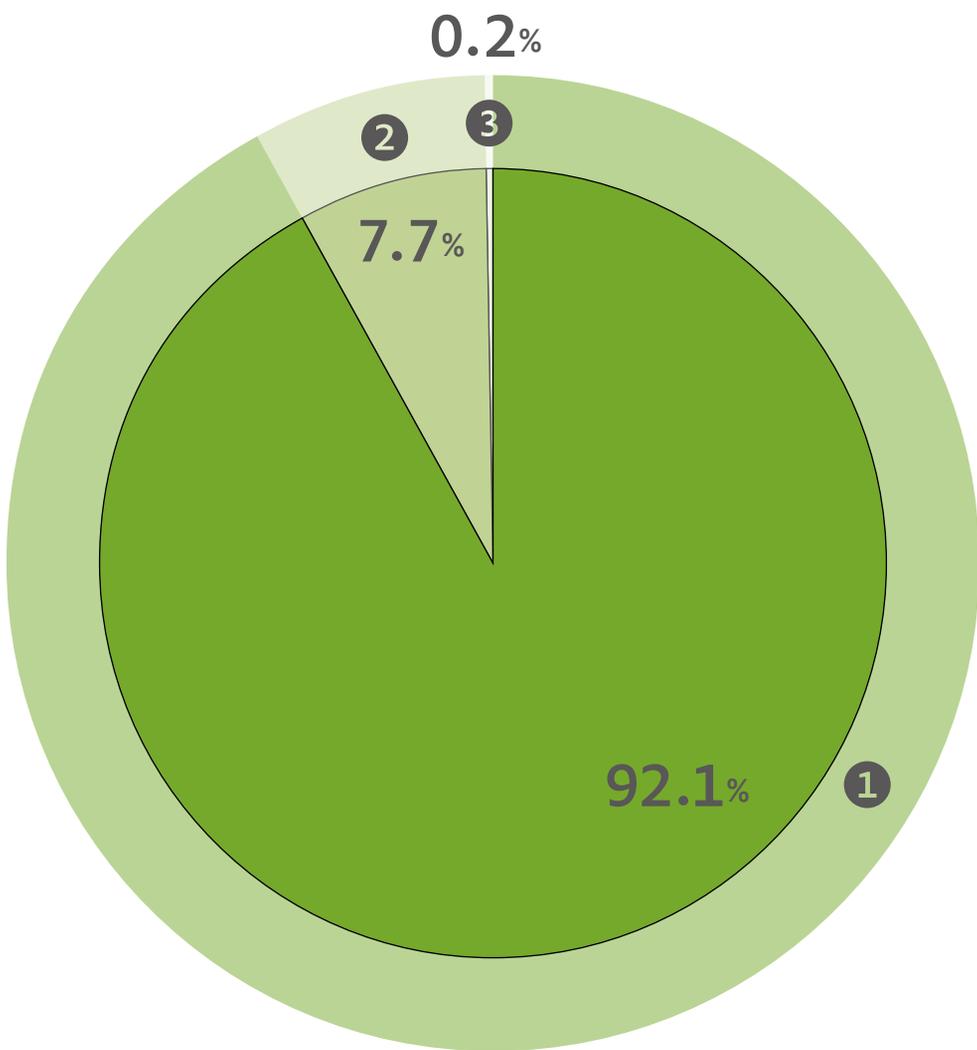
후원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 후원자 관리 및 개발 | 후원자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관리 | 신규 후원자 모집 | 모금팀 직원 및 코디네이션

12,538,714,535

2024 서울 사무소 수입 내역

총 수입(단위: 원)

16,186,558,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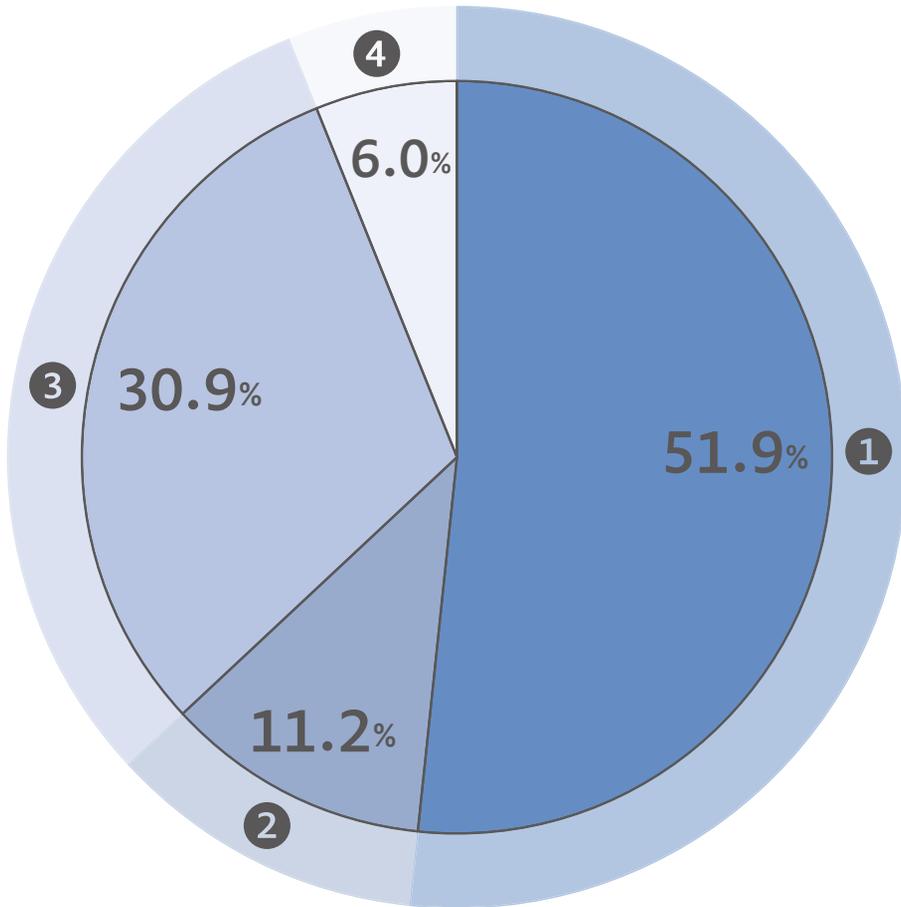


1	기존 후원자 후원금	14,909,266,653
2	신규 후원자 후원금	1,250,454,460
3	이자 및 기타	26,837,602

2024 서울 사무소 지출 내역

총 지출(단위: 원)

16,522,572,378



1 캠페인 및 캠페인 지원

기후에너지 | 해양 보호 및 극지방 | 생물다양성 | 플라스틱, 독성물질 제거 | 국제 그린피스 캠페인 지원
기타 교차 캠페인 | 캠페인 코디네이션 | 캠페인 언론 홍보 | 환경 정보 홍보 및 시민 교육 | 비폭력 직접행동 및 자원봉사 관리 |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 서포터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8,577,834,585

2 조직 관리

재무관리 | IT지원 | 인사관리 | 법률 자문 | 직원 개발

1,842,587,060

3 모금 및 후원자 관리

신규 후원자 모집 | 후원자 관리 및 개발 | 후원자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관리 | 모금팀 직원 및 코디네이션 | 고액 후원자, 유산기부 프로그램

5,109,601,338

4 기타

이자비용 및 환차손 등

992,549,395

체인지메이커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구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 앞에서, 당신의 특별한 기부는
단순한 후원이 아닌 자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지금, 지구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함께해주세요.
당신의 나눔은 세대를 넘어 지속될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린피스 체인지메이커
(1천만 원이상 기부 및 유산기부 약정)

문의
02-6952-6735

그린피스 콘텐츠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그린피스는 새로운 캠페인 소식과 활동 성과는 물론,
최신 환경 이슈와 이벤트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후원자님들께 추첨을 통해
총 10분에게 특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 기간: 2025년 8월 31일 까지

설문조사 



지금 클릭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